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630호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 외 1명(찬성자 19명)

다. 발의일자 : 2026년 4월 6일

라.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2. 제안이유

-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안보’ 관련 자원을 관광 요소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안보 관광 상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 아울러 기존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산업에 국한되었던 관광자원의 범위를 ‘안보’ 영역까지 확대하여,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범주에 ‘안보’를 추가하여, 시장이 안보와 연계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 관광자원과 더불어 ‘안보’ 관련 관광자원도 관광상품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안보관광의 개요

- “안보관광”은 법적·행정적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¹⁾에 따르면 전쟁, 죽음, 재난, 재해와 관련된 현장과 역사적 사실을 탐방하는 관광 활동을 뜻한다고 정의한 바 있음.

또한 우리나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정책과 언론 기술을 살펴보면 안보관광은 현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장소를 통해 국민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목적의 관광으로 통용되어 온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정부는 1987년부터 강원도 구철원읍 주변을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김화, 평화의 댐, 직연폭포, 파로호, 편치불, 화진포, 건봉사 등 7개 지구를 안보관광지로 개발한 바 있음.
- 이후 2000년대부터 강원도 철원 DMZ 주변 ‘평화문화광장’ 조성 등 전쟁을 넘어 평화를 강조하는 시설도 조성하였지만, 2010년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안보관광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 방안(전효재)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당시 상황과 장병들의 투혼을 보여 주고자 연평도 포격전 전승기념관 건립 등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안보관광의 흐름이 변하기도 하였음.

최근에는 안보자원을 평화적 관점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안보자원인 DMZ를 지역 자연자원과 연계·활용한 생태관광²⁾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다. 개정안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총 40개의 안보관광지가 있으며, 한 해 동안 2,399,438명(내국인: 1,804,633명, 외국인: 594,805명)이 방문하였음.

< 전국 안보관광시설 현황 >

소 관	관광지명	개수
육 군	도라전망대, 제3땅굴, DMZ 평화의길(파주노선), JSA, 오두산전망대, 상승전망대, 1·21 침투로, 비룡전망대, 임진강 평화습지원, 두루미 관찰대, 연강갤러리, 태풍전망대, 백마고지 전적비, 열쇠전망대, DMZ 평화의길(철원노선), 제2땅굴, 월정리역, 평화전망대, 백골전망대, DMZ 생태 평화공원,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백암산 케이블카, 두타연, DMZ 평화의길(양구노선), DMZ 평화의길(인제노선),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금강산 전망대, DMZ 평화의길(고성노선), 육군박물관, 국립전사박물관	32
해군/해병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평택 안보공원, 애기봉전망대, 강화도 평화전망대, 백령도OP, 포항역사관	6
공 군	공군박물관, 철매역사관	2

출처 : 국방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인용)

2) 국방부·통일부·행정안전부 ‘DMZ 평화의 길 사업’,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 동 연차보고서에 따른 40개의 안보관광지 분포는 대부분 DMZ 부근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울 소재의 안보관광지는 없는 상황임.

또한 서울시 내에는 전쟁 및 현충 관련 시설³⁾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며, 서울시가 관할하는 관련 시설로는 창동 평화문화진지⁴⁾, 문학의집 서울⁵⁾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문화시설의 기능 위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안보관광”을 테마로 한 정책적 접근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향후 서울시가 안보관광과 관련한 시설이나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가 겪어온 전쟁과 분단의 역사에 대한 성찰, 평화의 가치 확산, 국가 안보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안보 관련 관광자원의 활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서울시 차원의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임.

3) 국립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등

4) 옛 대전차방호시설

5) 옛 중앙정보부장 관저

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안 제7조제3항)

- 동 개정안은 시장이 개발·보급해야 할 관광상품의 범위에 ‘안보’를 관광자원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u>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u>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u> ----- ----- ----- ----- ④ (현행과 같음)

- 현재 “안보”는 법령적으로 정비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전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보관광”은 정책적으로 북한과의 적대적 상황으로 인한 기념장소를 방문하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리고, 호국정신을 강화하는 목적의 관광으로 통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보”를 서울시의 관광자원으로 인지하고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것은, 법리적 해석의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현존하는 분단 국가로서의 특성과 현실을 알리는 서울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의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임.

- 한편 조례의 시행주체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서울시 관광정책의 비중을 감안하여 ‘안보’를 나열된 관광자원의 마지막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의안번호
363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형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의 범위에 ‘안보’를 명시하여 안보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함으로써,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범주에 ‘안보’를 추가하여, 시장이 안보와 연계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추진경과	○ '26. 4. 6.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0)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광자원 범위에 ‘안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기존 개정 사례('20.7., ‘산업’ 문구를 마지막에 추가)와 서울의 관광자원에서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안보’ 문구는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대응방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방문하여 부서 검토의견 설명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팀장	조수진(☎2133-2807) 담당 김영미(☎2133-2804)